

연구논문

## 빈곤여성근로자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윤명숙\*\* · 김남희\*\*\*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보존이론'에 근거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빈곤 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J지역 여성자활사업 참여자 1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자활근로자들의 '개인적 특성(희망, 문제음주)', '조건(가정적 요인: 가정폭력, 사회적 요인: 사회적 배제)', '에너지(경제적 스트레스)' 자원이 각각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희망 수준,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및 사회적 배제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세 가지 요인들 중 연구대상자들의 우울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예측변인은 사회적 배제, 희망, 가정폭력 순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빈곤여성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여성 자활근로자, 자원보존이론, 우울, 빈곤, 사회적 배제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2B20152513362).

\*\* 주저자,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yoon64@jbnu.ac.kr)

\*\*\*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sunny89@empal.com)

© 2017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1. 문제제기

최근 노동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급속한 고령화, 이혼율 증가 등 가족해체 현상 가속화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이 급증함에 따라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석재은, 2004).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 여성들의 경우 ‘생산적 복지’, ‘노동 연계 복지’ 기조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시행 중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자활 성과 및 빈곤탈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선경, 2012). 자활근로사업이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서비스로서, 근로능력이 있지만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 환경, 사회복지 등의 영역에서 일자리를 개발하여 근로경험을 축적하고 노동시장 진입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02). 자활사업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으로 일부에서는 ‘빈곤의 여성화’와 함께 ‘자활의 여성화’로까지 인식되는 상황이다(정민숙, 2005). 노동부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창업지원 유형을 제외한 자활사업에서 남성보다 여성 참여자 수가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승, 2005). 이를 통해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하에서 가부장적 가족관계와 자립대책의 미비, 빈곤 여성가구주의 증가 등 여성의 빈곤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빈곤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빈곤 탈출 또한 성공적이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김선경, 2012), 여성 자활근로사업의 실태와 자활 성과 등과 관련한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사업

실태 및 성과 등 주로 거시적인 자료들을 활용하여 특성 파악에 머무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여성, 빈곤, 정신건강은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빈곤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김유심·곽지영, 2010; Chandler, et al., 2005; Ngo, et al., 2016)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정신건강의 대표적인 문제인 우울과 빈곤과의 관계연구(Belle and Doucet, 2003; Grant, et al., 2011)는 빈곤여성연구의 중요한 축으로 제시되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일부에서는 저조한 자활성과에 대한 원인이 경제적 자활에만 치중한 것 때문이라는 반성과 함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심리 정서적 측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김선경, 2012). 경제적 측면의 지표만을 강조하는 것은 자활 참여자들의 자활기반을 제공하는 과정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심리사회적 변화와 같은 정서적 측면의 자활이 중요한 성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박재민 외, 2014; 이형하·조원탁, 2004). 미국의 경우에도 복지개혁 이후 빈곤가구 한시부조(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이하 TANF)의 문제점을 평가하는 측면에서 저소득 여성가장의 심리적 복지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연구(Jayakody and Stauffer, 2000)가 제시되고 있다.

우울은 여성자활근로자의 대표적 정신건강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약 1.5-3배 정도 높은 유병률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essler, 2003; Nolen-Hoeksema and Keita, 2003). 빈곤여성 자활근로자들은 일자리를 가진다고 하여도 오랫동안 겪어 온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만성화된 우울로 일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서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해,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또다시 잃게 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장경혜·김정규, 2014). 따라서, 빈곤자활근로자의 우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심리적 자활의 척도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박화옥 외, 2015). 특히, 여성자활근로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가구주로 가정경제 및

육아와 돌봄 등 가정 전반을 동시에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우울은 자신 뿐 아니라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생활에까지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자활근로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전무하다. 빈곤여성의 우울 영향요인 연구 등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등 개인적 요인(고정은·이선희, 2015)과 배우자 유무, 가족응집력, 양육스트레스 등 가족요인(김유심·곽지영, 2010), 대인관계 등 사회·경제적 요인(김유심·곽지영, 2010) 등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요인들은 빈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 노인으로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빈곤 여성 자활근로자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 여성자활근로자의 '개인적 특성(희망, 문제음주 성향)', '조건(가정적 요인: 가정폭력, 사회적 요인: 사회적 배제)', '에너지(경제적 스트레스)' 자원을 중심으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빈곤여성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여성개인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자활사업의 효과성 증대라는 거시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홉폴(Hobfoll, 1989)의 '자원보존이론(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COR)'에 근거해 빈곤 근로여성들을 둘러싼 개인, 가족, 경제·사회적 자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자원보존이론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개인의 인지적 또는 평가적 속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스트레스 이론에서 벗어나 개인 내적인 영역과 환경적인 영역을 동일하게 강조하는 통합이론으로 자원의 상실과 획득과정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된다(강은나·최재성, 2014). 이러한 자원보존이론을 적용하여 빈곤 여성자활근로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개인 및 개인을 둘러싼

환경 속 자원의 상실을 방지하고, 이를 획득하고 유지함으로써 개인의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대인 서비스 영역에서 개입의 지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Kaiser, et al., 1996). 이를 통해 빈곤근로여성들의 우울을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실천적 지원방안을 제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 2. 선행연구고찰

### 1) 여성자활사업근로자의 우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김기태 외, 1997)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상당한 무력감과 우울·불안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는 일반인에 비해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자활할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활뿐만 아니라 심리적 자활 역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반인에 비해 이들 집단의 사회적 부적응, 불안 및 우울의 정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상규·이병하, 2004). 특히 빈곤은 여성 우울의 가장 일관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Belle and Doucet, 2003), 자녀를 가진 저소득여성의 경우 특히 높은 수준의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amon and Zuehl, 2001; Gyamfi, et al., 2001).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낮은 학력 및 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에 따른 박탈감과 빈곤에 따른 심리적 위축, 사회적 소외감, 낮은 자신감, 대인 기술의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경, 2004). 저소득 계층일수록 우울감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낮아 부정적 생활사건에

더 많이 노출된다(House, et al., 2005). 빈곤층 여성들은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착취 상황에서 일반 인구집단보다 더 자주 위협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생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며(Ennis, et al., 2000), 이러한 생활 스트레스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높은 우울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유심·곽지영, 2010). 우리나라 자활근로사업과 유사한 조건 부수급 제도인 미국의 TANF의 경우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우울증 유병률 조사 결과 일반 여성에 비해 우울증 유병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증증으로 분류될 가능성 또한 2배나 높았다고 보고하였다(Miller, 2011). 특히, 9개월의 추적 조사 결과 우울한 여성 수급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고용이 낮았으며 수급 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1/3 이상이 불안과 우울증, 신체화 장애, 정신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박상규·이병하, 2004; 배옥란, 2013). 복지패널을 활용한 종단연구에서도 빈곤 여부에 따른 우울변화와 영향요인 검증은 통해 여성 빈곤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빈곤과 비빈곤에 따른 영향요인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궤적에 각각 차이가 존재함을 검증한 바 있다(강석임·전희정, 2013). 연구 결과, 비빈곤 집단에 비해 빈곤집단 여성의 우울 초기치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변화율의 폭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여성의 우울은 일반적인 취약성 요인과 함께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으로 인한 제약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까지 중복되어 더욱 심각할 수 있다(엄태완, 2008). 또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 된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자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여성 참여자의 경우는 육아와 장애가족,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 부담과 건강상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강남식 외, 2002). 이들은 육아 등의 가사노동과 가사 외 노동의 부담 속에서 정신적인 압박과 피로를 느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인숙, 2007). 실제로 송다영과

성정현(2006)의 연구에 의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는 빈곤 여성은 72.4%에 달하며, 우울감 58.7%, 고립감 48.1%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여 빈곤 여성이 취약한 정신 건강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노인의 경우에도 빈곤집단이 비빈곤 집단에 비해 우울 유병률이 더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정은 · 이선희, 2015).

여성 자활사업근로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근로의욕과 고용시장 진입 성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탈수급과 탈빈곤이라는 자활사업의 근본 취지에 도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활근로자들의 경우 우울과 불안이 높고 일상생활에서 불행감과 불편감이 많을수록 자활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배옥란, 2013). 김선경(2012)의 연구에서도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여성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했다. 따라서 빈곤여성근로자의 심리적 · 정서적 요인, 우울에 대한 탐구는 자활의욕 고취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자활사업의 정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궁극적으로 정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견된다(이상록, 2003; 정원오 · 김진구, 2005).

## 2) 여성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한 본 연구모형 도출을 위해 개인의 자원 상실 및 획득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를 규명한 홉폴(Hobfoll, 1989)의 자원보존이론을 적용하였다. 자원보존이론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변화로 야기되는 자원의 상실과 획득 간의 역동이 스트레스를 불러 일으키며(Hobfoll, 1989),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 우울의 원인이 된다고 가정한다(Brown and Andrews, 1986).

자원보존이론에서 자원의 종류는 개인에 의해 평가되는 대상(objects), 조건(conditions), 개인적 특성(personal characteristics), 에너지(energies)로 분류된다(Hobfoll, 1989). 대상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물질자원을 뜻하는데 주택, 의복, 이동수단 등이 포함된다. 조건은 결혼, 재임기간, 연공서열 등 사람들이 원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지위나 유익한 또는 빈약한 사회적 관계 등을 일컫는다. 개인적 특성은 개인의 가치관, 자기 개념 등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적 자원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는 돈이나 시간, 지식과 같이 다른 자원을 획득하는 것을 돕는 자원을 뜻한다(Hobfoll and Lilly, 199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원 유형들 중 조건과 개인적 특성, 에너지의 측면에서 빈곤 여성자활근로자의 정신건강 예측요인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빈곤 여성 자활근로자들의 자원 상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홉폴(Hobfoll, 2001)은 사람들에게서 자원의 상실이 자원의 획득보다 불균형적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개인들은 기대했던 자원의 보존이 상실되는 경우, 실망 및 무력감 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즉, 자원의 투자를 통해 자원 획득에 실패하거나, 자원상실에 대한 위협감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그리고 자원의 실제 상실에 대한 반응 등은 개인의 스트레스 및 긴장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먼저, 빈곤 여성자활근로자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한 조건 자원으로 학력을 비롯해 가족관계에서의 폭력 노출 정도와 사회적 결핍감을 포함하였다. 문제음주 성향과 희망적 기질은 개인의 특성 자원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원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빈곤 여성자활근로자들의 조건 및 개인적 특성, 에너지 등 심리사회적 자원 상실이 우울에 선행하여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상정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폭음과 만성적 음주, 가정폭력, 심신미약, 만성적 무기력증 등의 문제는 이들의 효과적인 재활을 위해 정신건강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루



어야 하는 중요한 표적요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윤명숙 외, 2008).

먼저, 빈곤층의 음주문제는 우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윤명숙 외, 2008; 허만세, 2013). 윤명숙 외(2008)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과 일반인의 문제음주와 정신건강 문제를 비교한 결과 수급자들의 문제음주비율이 일반 남성들의 평균 문제음주 수준보다 높으며,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도 더 나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허만세(2013)는 종단자료를 통해 빈곤 지속 및 빈곤 시작, 비빈곤 지속 집단에서의 음주문제와 우울의 상호 인과관계 분석을 한 결과, 오로지 빈곤 지속 집단에서만 이러한 상호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빈곤층에 있어 문제음주가 우울의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반면, 빈곤여성 자활근로자의 개인적 특성인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는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희망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생성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Snyder, 1994), 개인의 기질적 성향 및 정서적 특성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최유희 외, 2008). 김지혜와 성정현(2010)은, 빈곤여성 대부분이 불안정하고 취약한 고용상태 뿐 아니라 건강 악화와 역할과중, 주거 불안정 등의 부정적 생활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돼 우울과 같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취약한 특징을 보여준다고 제시했다. 반면, 빈곤여성가장에게 희망의 증진이 심리적 디스트레스 감소 등 긍정적 결과물을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다.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함께 가족 관계에서 경험하는 폭력 피해 등 불건강한 가족 조건도 여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김민정, 2011; 차보경·손정남, 2006). 빈곤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할 위험성이 더 높으며(윤명숙 외, 2008), 빈곤과 가정폭력이 맞물리면서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폭·강화될 위험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언주, 2015). 빈곤 여성가구주의 생애사 연구(옥선화 외, 2003)에서도 빈곤 여성가구주들은 성차별적 가부장문화로 인해 성장과정에서부

터 교육의 기회를 제한받아 빈곤 문제를 가중시켰으며, 또한 남편의 무능력과 폭력을 인내하는 생활에서 심리·정서적인 어려움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빈곤 여성의 우울을 유발하는 조건 자원으로 사회적지지, 사회적 배제 등 사회적인 맥락과 관련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경제적 결핍만이 아닌 개인의 삶을 근원적으로 제한하는 사회문화적 결핍 혹은 박탈을 다룰 수 있는 다차원적 접근이며, 특정 시점에서의 정태적인 접근이 아닌 동태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가구주의 빈곤도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통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박미은·신희정, 2010). 사회적 배제는 단순한 빈곤이나 불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특정 집단 혹은 계층을 사회주류로부터 소외, 제외시키는 메커니즘을 가리킨다(Giddens, 2000). 즉, 단순한 가구의 소득 결여 혹은 실업만을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고, 빈곤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개념이다(Barnes, 2005). 자활사업과 같은 근로연계복지제도는 노동시장의 참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정책의 활성화 형태로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려는 적극적 복지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Peck,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빈곤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빈곤의 다차원성과 역동적 과정을 강조하는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다양한 영역과 과정을 밝힘으로써 성차별화된 빈곤 문제를 좀 더 치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정미숙, 2008). 최근 국내의 연구들은 빈곤의 다차원적 영역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적인 영역 뿐 아니라 주거, 교육, 건강, 가족지원체계, 사회적 편견,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로부터의 배제를 분석하고 있다(송다영, 2003; 정미숙, 2008). 대부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인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검증된 바 있다(이윤정, 2017).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배제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노병일 · 손정환, 2011). 빈곤여성의 경우에도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데 유능하고 타인의 보살핌 속에 있다고 느끼는 반면, 부정적인 자기 인지와 함께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우울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김유심 · 곽지영, 2010).

소득 수준을 포함한 경제 관련 요인도 대표적인 에너지 자원으로 빈곤여성 근로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이다(엄태완, 2008; Eaton, et al., 2001; Noeln-Hoeksema and Keita, 2003). 소득수준이 높은 취업 주부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우울 등 심리적 부적응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희석, 2002). 특히, 빈곤층의 경우 만성적인 경제적 압박과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직·간접적인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울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엄태완, 2008).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어주경, 1999). 김유심과 곽지영의 연구(2010)에서도 경제, 자녀양육, 배우자 상실, 부모역할 수행, 대인관계 등 다양한 생활사건 중 경제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 밖에 연령,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도 빈곤여성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강상경과 권태연(2008)은 청년기부터 노년 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우울수준은 성별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며, 또한 전체 연령대에서 여성의 우울수준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강석임과 전희정(2013)도 연령에 따라 우울의 유병율이 변화를 나타냄을 확인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빈곤여성의 우울이 변화의 궤적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들일수록 우울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김정선·신경림, 2004). 엄태완(2008)의 연구에서도 빈곤여성의 우울이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보고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추론되듯이 여성 자활근로자들의 우울 예측 요인이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조건, 경제문제 등 다양한 자원의 획득 및 상실의 역동에 따라 다차원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요인에 국한해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에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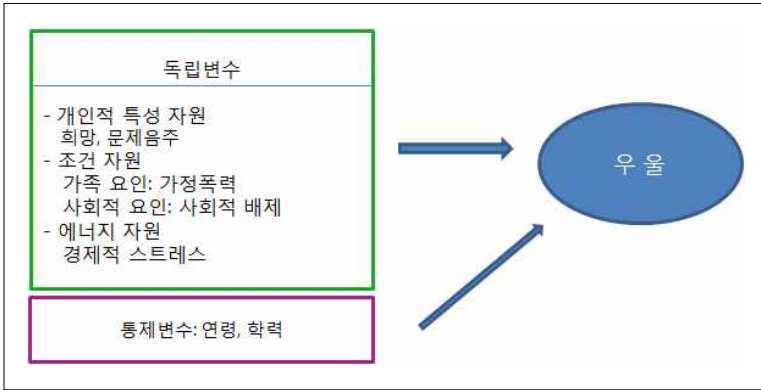
### 3.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J지역 빈곤 여성자활근로자의 자원을 ‘개인적 특성(희망, 문제음주 성향)’, ‘조건(가정적 요인: 가정폭력, 사회적 요인: 사회적 배제)’, ‘에너지(경제적 스트레스)’ 자원으로 각각 구성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연령, 학력 수준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성자활근로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학력 수준)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여성자활근로자들의 ‘개인적 특성(희망, 문제음주 성향)’, ‘조건(가정적 요인: 가정폭력, 사회적 요인: 사회적 배제)’, ‘에너지(경제적 스트레스)’ 자원은 각각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J지역 여성자활사업 참여자 197명이다. 자활사업참여자는 지역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조 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 계층이 해당된다. 본 연구를 위해 J 지역 7개 시·군 자활센터에 등록된 여성 자활근로자들을 목적적 표집방 법으로 조사하였다. 목적적 표집의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및 기관 별로 조사대상을 비례할당하였다. 조사원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 설문 목 적 및 방법을 설명한 후 조사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일부 기관은 실무자들에게 협조를 구해 우편조사 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전 10명의 여성자활근로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예 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문항을 최종 수정 점검하였다. 조사는 2014년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총 300부를 배부해 215부가 수거되었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보인 18부를 제외한 19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	항목	구분	빈도	%
연령	40세 이하	39	19.8	학력	중졸 이하	84	42.6
	41-60세	135	68.5		고졸	76	38.6
	61세 이상	20	10.2		대졸 이상	35	17.8
	결측	3	1.5		결측	2	1.0
	계	197	100		계	197	100
가구 주 여부	예	108	54.8	월소득	100만원 미만	134	68.9
	아니오	87	44.2		100만원 이상	44	22.3
	결측	2	1.0		결측	19	9.6
	계	197	100		계	197	100
혼인 상태	미혼	21	0.7	주거 상태	자가	44	22.3
	기혼 및 동거	86	43.7		전세	30	15.2
	이혼 및 별거	55	27.9		월세	50	25.4
	사별	34	17.3		영구임대	44	22.3
	결측	1	.5		기타	29	14.7
	계	197	100		계	168	100
가구 형태	독거	24	12.2	수급 유형	조건부수급자	104	52.8
	부부	27	13.7		자활급여특례자	13	6.6
	부부+자녀	46	23.4		차상위계층	72	36.5
	한부모+자녀	84	42.6		기타	8	4.0
	부모+부부+자녀	8	4.1		계	197	100
	기타	5	2.5				
	결측	3	1.5				
	계	197	100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은 40세 이하가 39명(19.8%), 41-60세 135명(68.5%), 61세 이상 20명(10.2%)이었다. 학력은 중졸이하가 84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76명(38.6%), 대졸이상 36명(17.8%) 순이었다. 이들 중 108명(54.8%)은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134명(68.9%), 1백만 원 이상이 44명(22.3%)이었다. 혼인상태는 기혼(동거 포함)이 86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별거 포함) 55명(27.9%), 사별 34명(17.3%), 미혼 21명(10.7%) 순이었다. 가구형태는 ‘한부모+자녀’가 84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부부+자녀’ 46

명(23.4%), ‘부부만 사는 경우’ 27명(13.7%), ‘독거’ 24명(12.2%), ‘부모+부부+자녀’ 8명(4.1%), 기타 5명(2.5%)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상태는 월세가 50명(25.4%)으로 가장 많았고 자가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각 44명(22.3%), 전세 30명(15.2%), 기타 29명(14.7%) 순이었다. 수급유형은 조건부수급자가 104명(52.8%)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차상위계층 72명(36.5%), 자활급여특례자 13명(6.6%), 기타 8명(4.0%)으로 각각 나타났다.

### 3) 측정도구

#### (1) 종속변수: 우울

연구대상자들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스피처 외(Spitzer, et al., 1999)가 개발한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를 안재용 외(2013)가 번안, 표준화한 한국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간단하게 우울증을 선별하고, 우울증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기보고형 검사도구로 DSM-IV의 주요 우울장애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2주 동안 얼마나 이러한 문제를 자주 겪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로 ‘전혀 없음(0점)’ - ‘거의 매일(3점)’의 4점 척도로 평가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값은 .898로 나타났다.

#### (2) 독립변수

##### ① 희망

연구대상자들의 희망감을 측정하기 위해 스나이더 외(Snyder, et al., 1991)가 제작한 희망척도(Dispositional Hope Scale, DHS)를 최윤희 외(2008)가 타당화 한 한국판 희망척도(DHS-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통해 희망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도사고 4문항, 경로사고 4문항, 허위문항 4문항의 3요인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곤경에서 벗어날 많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정한 목표를 따른다', '나는 과거 경험들로 인해 미래를 잘 준비하게 되었다' 등으로, 4점 리커트 방식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값은 .874로 나타났다.

## ② 문제음주

연구대상자의 음주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AUDIT-K(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Korea)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989년 WHO에 의해 개발된 알코올 문제 선별도구를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총 10문항으로 되어 있다. 척도 구성은 음주 양에 대한 3문항, 음주 행태에 대한 3문항, 음주에 따른 부정적 결과에 대한 4문항으로 각각 이뤄져 있다. '전혀 없었다(0점)' - '매일같이 있었다(4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음주의 가능성이 높다. 총점이 12점 이상일 때 신체, 정신적으로 사회학적 문제를 포함하는 의미의 광범위한 의미의 '문제음주', 15점 이상일 때 DSM-IV에 의한 '알코올 남용', 26점 이상일 때 '알코올의존'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가 .920이었다.

## ③ 가정폭력

연구 대상자들의 가정폭력 피해 정도는 현재 배우자에게 받은 폭력 피해 경험과 성장기 가정폭력 직접 및 목격 경험으로 구성해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스트라우스 외(Straus, et al., 1996)의 CTS2(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문항 중 배우자에게 받은 신체적 폭력 2문항, 정서적 폭력 1문항, 성장기 가정폭력 목격 경험 2문항을 비롯해, 스트라우스 외(Straus, et al., 1998)의 PCCT(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중 정서적, 신체적 폭력, 방임 각 1문항씩 모두 8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없었



다(1점) - '일주일에 1-2번 정도(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총점이 높을 수록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값은 .898로 나타났다.

#### ④ 사회적 배제

연구대상자들의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감을 측정하기 위해 윤성호(2012)가 개발한 빈곤-사회배제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소비 및 자산, 건강, 교육, 사회적 관계, 사회제도, 사회참여, 지역사회환경, 지역사회시설, 자치단체, 노동 등 10개 영역에 걸쳐 여성 자활근로자 자신이 지각한 사회적 배제성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원 척도는 5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로 10개 문항을 추출한 후 연구목적에 맞게 노동영역 문항을 수정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1문항(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당한 경험)을 추가해 모두 12문항으로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이 .866으로 나타났다.

#### ⑤ 경제적 스트레스

여성자활근로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렘퍼스 외(Lempers, et al., 1989)가 개발하고 김영희(1996)가 사용한 질문 문항을 참고하여 어주경(1999)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매달 나오는 공과금이나 기타 청구서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일이 있다', '자녀 교육비를 제때에 못 내어 자녀의 과외 활동을 줄여야 했던 적이 있다', '가계의 지출을 맞추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거나 부업을 한 적이 있다' 등 가족의 수입 부족과 빚으로 인한 경제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총 9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응답의 범주는 '항상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척도이다. 총점의 범위는 9-45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이 .904로 나타났다.

#### ⑥ 기타

선행연구에서 빈곤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연령과 학력도 통제변수로 각각 투입하였다.

###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윈도우즈용 SPSS 20.0(SPSS 20.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의 특성, 집단 간 평균차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 등 기술통계 분석, t-test와 ANOVA 등 평균차이 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셋째, 여성자활근로자들의 개인적 특성, 조건, 에너지 자원이 각각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여성자활근로자들의 우울에 미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을 밝히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만을 추출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주요변수들의 특성

주요변수들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문제음주	0	40	4.88	6.95
희망	8	32	21.53	4.36
가정폭력	8	36	12.81	6.41
경제적 스트레스	9	45	27.96	8.04
사회적 배제	11	55	30.43	8.58
우울	0	27	8.14	6.31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주요변수의 평균차이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우울 평균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우울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학력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중졸 이하인 집단이 고졸 이상인 집단에 비해 우울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별 우울 평균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F Scheffe
연 령	40세 이하	39	9.44	6.72	1.258
	41~60세 이하	135	7.74	6.18	
	61세 이상	20	7.30	6.02	
학 령	중졸 이하	84	9.43	6.69	2.443*
	고졸 이상	111	7.18	5.91	
가구주 여부	예	108	7.56	5.89	-1.189
	아니오	87	8.62	6.61	
혼인상태	미혼	21	9.52	7.24	.587
	기혼(동거 포함)	86	7.58	6.31	
	이혼(별거 포함)	55	8.35	6.34	
	사별	34	8.35	5.85	
월소득	100만원 미만	134	8.35	6.59	1.121
	100만원 이상	44	7.23	5.47	
수급유형	조건부수급자	104	9.20	7.06	2.690
	자활급여특례자	13	7.38	4.17	
	차상위계층	72	7.00	5.48	

\*p<.01.

###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연속변수들 간 상호상관관계와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우울과 관련 있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문제음주( $r=.230, p<.01$ )’, ‘가정폭력( $r=.385, p<.001$ )’, ‘경제적 스트레스( $r=.270, p<.001$ )’, ‘사회적 배제( $r=.437, p<.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상관을, ‘희망( $r=-.156, p<.05$ )’은 부(-의 상관을 각각 나타냈다. 둘째, 독립변수들 간 상관관계 계수는 최대  $r=.646$ (경제적 스트레스-사회적 배제)로 모두 절대값  $r=.7$  보다 낮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분산팽창지수(VIF)를 살펴본 결과 1.048~1.934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송지준, 2008).

<표 4>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1							
2	-.595***	1						
3	-.054	-.142*	1					
4	.024	.068	.000	1				
5	.035	-.205**	.350***	.037	1			
6	.047	-.025	.007	.206**	.236**	1		
7	.030	-.160*	.099	.072	.330***	.646***	1	
8	-.063	-.131	.230**	-.156*	.385***	.270***	.437***	1

1. 연령, 2. 학력, 3. 문제음주, 4. 희망, 5. 가정폭력, 6. 경제적스트레스, 7. 사회적배제, 8. 우울.  
\* $p<.05$ , \*\* $p<.01$ , \*\*\* $p<.001$ .

#### 4) 여성자활근로자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 가족, 경제 및 사회 환경 요인이 여성자활근로자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위 참조).

1단계 모델에서 연령, 학력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연령( $B = -.131, p < .05$ )’, ‘학력( $B = -1.413, p < .01$ )’ 두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즉, 연령이 낮아질수록, 학력이 낮아질수록 우울수준이 증가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인, 가족, 경제 및 사회환경 요인을 모두 투입한 2단계 모델에서는 ‘희망( $B = -.262, p < .01$ )’, ‘가정폭력( $B = .221, p < .01$ )’, ‘사회적 배제( $B = .225, p < .001$ )’가 우울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희망의 수준이 낮을수록,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클수록, 사회적배제감을 크게 느낄수록 우울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델 2의 F값은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설명력은 30.6%(Adj.  $R^2 = .279$ )이었다.

이상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여성자활근로자들의 우울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력 있는 3개의 변인(희망, 가정폭력, 사회적 배제)들이 추출되었다. 이렇게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난 3개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ethod)을 통해 여성자활근로자들의 우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을 알아보았다(〈표 5〉 아래 참조). 투입된 3개의 독립변인이 여성자활근로자들의 우울을 설명할 수 있는 전체 변량은 32.2%이며 세 변인 모두 1% 이상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구대상자들의 우울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예측변인은 ‘사회적 배제( $B = .306, p < .001$ )’, ‘희망( $B = -.179, p < .001$ )’, ‘가정폭력( $B = .224, p < .00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이 클수록, 희망의 수준이 낮을수록, 가정폭력 경험이 많

을수록 우울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면 본 연구모형에서 여성자활근로자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경제적인 변인보다 사회 환경적 요인 및 가족 요인이 더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여성자활근로자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n=191)

구 분		1단계			2단계		
		B	$\beta$	t	B	$\beta$	t
상수(Constant)		17.939			6.434		
통제	연령	-.131	-.206	-2.314*	-.070	-.110	-1.391
	학력	-1.413	-.244	-2.732**	-.371	-.064	-.784
개인	문제음주				.104	.115	1.718
	희망				-.262	-.179	-2.841**
가족	가정폭력				.221	.224	3.161**
경제	경제적스트레스				.051	.065	.773
사회환경	사회적배제				.225	.306	3.569***
F		4.087*			11.514***		
$R^2$ (Adj. $R^2$ )		.042(.031)			.306(.279)		
$\Delta R^2$ ( $\Delta$ Adj. $R^2$ )					.264(.248)		
변인	B	t	$R^2$	$\Delta R^2$	F		
사회적 배제	.236	5.102***	.189		45.319***		
희망	-.410	-4.396***	.255	.066	32.972***		
가정폭력	.271	4.380***	.322	.067	30.448***		

\*\*\*p<.001, \*\*p<.01, \*p<.05.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빈곤여성근로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J지역 여성자활사업 참여자 1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과 학력이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이 낮아질수록 우울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애주기에 따라 빈곤여성의 우울이 변화의 궤적을 보인다고 보고한 강석임과 전희정(2013)의 연구과 맥을 같이한다. 또, 학력이 중졸 이하인 집단이 고졸 이상인 집단에 비해 우울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빈곤여성의 우울이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이인숙, 2007; Belle and Doucet, 2003)과 맥을 같이한다. 임태완(2008)의 연구에서도 빈곤여성 중 학력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의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모형에서 여성자활근로자들의 ‘개인적 특성(희망, 문제음주 성향)’, ‘조건(가정적 요인: 가정폭력, 사회적 요인: 사회적 배제)’, ‘에너지(경제적 스트레스)’ 자원의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희망과 가정폭력, 사회적 배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즉,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인식이 클수록, 희망이 낮을수록,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 대상자들인 J지역 빈곤 여성자활근로자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경제적인 변인 보다는 사회 환경적 요인 및 가족 요인이 더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빈곤여성의 희망 증진이 심리적 디스트레스 감소 등 긍정적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김지혜와 성정현의 연구(2010)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빈곤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경험과 우울 등 정신건강과의 인과관계를 보고한 연구들(박언주, 2015; 윤명숙 외, 2008)과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이 세 가지 요인들 중 연구대상자들의 우울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예측변인은 사회적 배제이며 희망, 가정폭력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빈곤여성들은

우울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한 김유심과 박지영(2010)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한편, 소득 수준을 포함한 경제 관련 요인들이 빈곤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보고한 연구들(엄태완, 2008; Ansseue, et al., 2008; Eaton, et al., 2001)과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보다 사회적 배제, 희망, 가정폭력요인이 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빈곤여성의 가장으로서의 역할, 돌봄, 자녀양육, 부부폭력 등 다중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빈곤 여성 자활근로자의 개인적 특성 자원 중 문제음주 성향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 연구가설이 입증되지 않아 빈곤층의 문제음주 성향이 우울의 예측요인이라는 윤명숙 외(2008) 등의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기존의 빈곤층 음주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 남, 녀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특화된 연구결과가 부족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 여성 자활근로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 빈곤과 여성, 정신건강의 문제는 동시에 나타나는 강력한 위험요인들로 삶의 질을 위협하고 이들 빈곤여성들을 사회적 소수자의 삶의 낙으로 유인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자활사업은 경제적 측면의 지표만을 강조해 과정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자활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박재민 외, 2014; 이형하·조원탁, 2004). 김은정(2004)도 자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특성이나 수급자들의 특성과 관련된 어떠한 요인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등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자활사업은 ‘빈곤의 여성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생산과 복지의 연계’ 기조 하에 여성 참여자가 과반을 훨씬 넘어 ‘자활의



여성화'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적 조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자활사업 기획 및 추진 과정에서 여성주의적 관점이 보다 확대·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활, 탈빈곤 등 자활근로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참여 여성들에 대한 임파워먼트를 위한 여성 특화된 심리·정서적 개입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빈곤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실질적 여성 가구주이거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가 많고 생계부양자이면서 돌봄을 제공하는 등 가족 안에서 다중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부담감 등 많은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황정임, 2005). 하지만 여성자활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여도 빈곤여성들은 오랫동안 겪고 있는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만성화된 우울로 일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서적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또다시 잃게 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기도 한다(장경혜·김정규, 2014). 이처럼 빈곤 근로여성들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 속에서 성차별적, 가부장적 사회 구조 하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우울을 비롯해 심리적 위축감, 무기력감, 자괴감, 힘듦 등에 대해 토로하고 있어 빈곤문제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만 우선순을 두기보다 전문 상담인력 및 사례관리 인력 등을 배치해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 노력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 주에서 2007년부터 우리나라 자활근로제도와 유사한 TANF 프로그램과 관련해 수급자 여성들의 우울증 유병율을 주 차원에서 조사하도록 입법하고 치료 지원 등 제도보완에 나섰다. TANF 제도의 실효성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자활근로사업에서 여성 참여자들의 상황적 특성에 입각한 별도의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도 빈곤 근로여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치료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과 대인관계 및 가

족관계 향상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심리 정서적 개입이 소득상승을 위한 경제적인 개입과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 결과로 '사회적 배제'가 빈곤 여성자활근로자들의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 변수로 분석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배제란 개인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길이 포괄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빈곤 여성자활근로자에게 있어서 사회적 배제란 성별분업이데올로기 및 노동시장 분절에 의한 여성 노동의 계도화, 남성생계부양모델에 근거한 가부장적이며 이원화 된 복지체계 등 성 차별적인 사회 구조 하에서 교육 기회에 있어서의 배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사회적 지지망 및 안전망 영역에서의 배제, 주거에서의 배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소외에 다차원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신은주, 2004). 이러한 다차원적인 배제의 경험은 빈곤한 자활근로 참여 여성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직결된다. 빈곤 여성의 우울은 일반적인 취약성 요인과 함께 사회경제적 하위 계층으로 인한 제약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까지 중복되어 더욱 심각할 수 있다(엄태완, 2008). 따라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빈곤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에 개입하는데 있어 우울을 유발하는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요인, 가족관계 등 가족적 요인과 함께 사회적인 맥락과의 관련 속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성인지적 관점에 의거한 '사회적 배제'의 측면에서 빈곤 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포함한 개인 여건, 혼인상태나 육아 등 가족여건, 직업력, 빈곤의 뒷에 빠진 원인과 경로 등에 대한 정밀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신은주, 2004). 또한 빈곤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여 이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해당 지자체, 고용복지지원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 NGO단체 등과 연계하여 빈곤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주거, 교육, 건강, 가족지원체계, 사회적 편견,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로부터의 배제 등 다차원적인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 빈곤 여성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이러한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에 입각해 취약 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 특화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확충이 요구된다. 그 동안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60-70%가 여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설계와 추진 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황정임, 2005). 자활사업 전반에 걸친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 부재는 빈곤여성의 자활을 통한 탈빈곤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할 것임이 자명하다. 따라서 여성자활근로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가사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일-가정 양립 문제, 미래 노동수요나 시장력을 바탕으로 한 여성 친화적 일자리 개발 등(백선희, 2005; 황미영, 2002)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특화된 사업 설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빈곤여성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차원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 본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J지역 여성자활근로참여자들이 한정한 지역적 제한으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 자활근로자들의 경우 가구주인 경우와 비가구주인 경우, 참여 사업 종류와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등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측정하여 분석한 횡단 연구로 연구 대상자들의 시간 변화에 따른 우울 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점도 한계점으로 남는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 및 분석방법의 활용을 통한 연구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강남식·신은주·성정현(2002),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 제19권, 23-50쪽.
- 강상경·권태연(2008),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0권, 332-355쪽.
- 강석임·전희정(2013), “기혼여성의 우울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제33권, 161-188쪽.
- 강은나·최재성(2014), “노년기 우울의 다중변화궤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4권 2호, 387-407쪽.
- 고정은·이선혜(2015), “여성노인의 우울 영향요인: 빈곤집단과 비빈곤 집단 간 차이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68권, 251-271쪽.
- 권승(2005), “비취업대상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권 탈피에 관한 연구: 수급권 탈피의 결정요인과 자활사업의 “단계적 발전전략” 논리의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2권, 179-205쪽.
- 김기태·류기형·박병현 외(1997),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정서·심리 및 사회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7권, 289-316쪽.
- 김민정(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가정폭력이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제19권 3호, 1-28쪽.
- 김선경(2012), “저소득 자활 참여 여성의 우울감과 자활의지: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

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가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유심·곽지영(2010), “빈곤여성가장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가족응집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제11권 1호, 161-179쪽.

김윤경(2004), “자활지원사업의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자활후견기관 참여자의 근로의욕 증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은정(2004), “미국 복지개혁 이후 복지수급자들의 생활실태: 편모가정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제23권 1호, 131-153쪽.

김정선·신경림(2004), “성인여성의 우울과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34권 2호, 352-361쪽.

김지혜·성정현(2010), “빈곤여성가장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 『가족과 문화』, 제22권 1호, 65-93쪽.

노병일·손정환(201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1호, 113-135쪽.

박미은·신희정(2010), “생애사 연구를 통한 여성 가구주의 빈곤화 과정과 사회적 배제의 경험: 대전지역의 빈곤 여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6권 3호, 167-193쪽.

박상규·이병하(2004), “빈곤층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4호, 813-824쪽.

박언주(2015), “여성노인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가정폭력과 빈곤”, 『한국여성학』, 제31권 2호, 299-334쪽.

박재민·유태균·최수영(20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신건강이 자활성파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제41권 4호, 125-146쪽.

박화옥·노혜련·유서구(2015), “강점관점 사례관리 서비스만족도가 심리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층 여성가구주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

- 연구』, 제6권 1호, 115-145쪽.
- 배옥란(2013),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신건강이 자활성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백선희(2005),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지원방식 논쟁의 재구조화: Burchardt의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1호, 5-30쪽.
- 보건복지부(2002), 「여성자활 활성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 개발」, 서울: 보건복지부.
- 석재은(2004),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2호, 167-194쪽.
- 송다영(2003), “사회적 배제 집단으로서의 저소득 모자가족과 통합적 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4권, 295-320쪽.
- \_\_\_\_·성정현(2006), “근로빈곤층 여성가장 가구의 생활실태와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25권, 81-106쪽.
- 송지준(2008),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21세기사.
- 신은주(2004), “근로빈곤층의 가구유형과 근로능력에 따른 빈곤기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 신희석(2002), “생의 의미가 중년 주부의 우울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7권 1호, 29-45쪽.
- 안제용·서은란·임경희 외(2013),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의 표준화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제19권 1호, 47-56쪽.
- 이주경(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박사학위논문.
- 임태완(2008), “빈곤층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우울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28권, 36-66쪽.

- 옥선화 · 성미애 · 이재림(2003), “빈곤 여성가장의 삶의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41권 2호, 65-91쪽.
- 윤명숙 · 김성혜 · 채완순(2008),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과 일반인의 문제음주와 정신건강 비교연구”, 『한국알코올과학회지』, 제9권 2호, 13-26쪽.
- 윤성호(2012), “한국형 사회배제성 척도 개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8권 1호, 53-95쪽.
- 이상록(2003), “자활사업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인식과 태도가 자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21권, 105-136쪽.
- 이윤정(2017),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관계망이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입소시설 프로그램 지원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시설환경』, 제15권 2호, 55-64쪽.
- 이인숙(2007), “여성의 빈곤, 빈곤의 여성화”, 『부산장신논총』, 제7권, 287-314쪽.
- 이형하 · 조원탁(2004), “한국 자활사업의 자활효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자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20권, 217-244쪽.
- 장경혜 · 김정규(2014), “도시 빈곤여성의 우울 감소를 위한 계슈탈트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 『한국계슈탈트상담연구』, 제4권 2호, 23-48쪽.
- 정미숙(2008), “성별화된 빈곤과 사회적 배제: 저소득 여성가구주의 빈곤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5권 2호, 3-44쪽.
- 정민숙(2005), “여성자활참여자의 자활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 만족도를 중심으로”, 『남부대학교 논문집』, 제5권, 81-111쪽.
- 정원오 · 김진구(2005), “자활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자립전망: 경기지역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28권, 35-67쪽.
- 차보경 · 손정남(2006), “기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 유무에 따른 스트레스,

- 분노, 분노 표현 방식 및 우울”, 『정신간호학회지』, 제15권 2호, 187-196쪽.
- 최유희 · 이희경 · 이동귀(2008), “Snyder의 희망척도 한국 번역판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2권 2호, 1-16쪽.
- 허반세(2013), “음주문제와 우울 간의 인과관계와 빈곤상태 변화의 연관성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제65권 2호, 203-230쪽.
- 황미영(2002), “빈곤여성의 자활 경로와 그 결과”, 『비판사회정책』, 제12호, 183-214쪽.
- 황정임(2005), 빈곤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자활공동체(참여여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 Ansseue, M., B. Fischler, and M. Dierick, et al.(2008), “Socioeconomic Correlates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nd Major Depression in Primary Care: The Generalized Anxiety and Depression Impact Survey II”, *Depression and Anxiety*, 25, pp. 506-513.
- Barnes, M.(2005), *Social Exclusion in Great Britain: An Empirical Investigation and Comparison With the EU*, UK: National Center for Social Research.
- Belle, D. and J. Doucet(2003), “Poverty,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as Sources of Depression Among U. S.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7, pp. 101-113.
- Brown, G. W. and B. Andrews(1986),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Dynamics of Stress*, pp. 257-282.
- Chandler, D. C., J. Meisel, and P. Jorden, et al.(2005), “Mental Health, Employment, Welfare Tenur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3(5), pp. 587-609.
- Eamon, M. K. and R.M. Zuehl(2001), “Maternal Depression and Physical Punishment as Mediators of the Effect of Poverty on Socioemotional



- Problems of Children in Single-Mother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1(2), pp. 218-226.
- Eaton, W. W., C. Muntaner, and G. Bovasso, et al.(2001), “Socioeconomic Status and Depressive Syndrome: The Role of Inter-and Intra-Generational Mobility, Government Assistance, and Work Environ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2(3), pp. 277-294.
- Ennis, N. E., S. E. Hobfoll, and K. E. Schröder(2000), “Money Doesn’t Talk, It Swears: How Economic Stress and Resistance Resources Impact Inner-City Women’s Depressive Mood”,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2), pp. 149-173.
- Giddens, A.(2000), *The Third Way and Its Critics*, Oxford: Polity Press.
- Grant, T. M., D. C. Jack, and A. L. Fitzpatrick, et al.(2011), “Carrying the Burdens of Poverty, Parenting, and Addiction: Depression Symptoms and Self-Silencing among Ethnically Diverse Wome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7, pp. 90-98.
- Gyamfi, P, J. Brook-Gunn, and A. P. Jackson(2001), “Associations Between Employment and Financial Parental Stress in Low-Income Single Black Mothers”, *Women and Health*, 32(1/2), pp. 119-135.
- House, J. S., P. M. Lantz, and P. Herd(2005),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Aging and Health Over the Life Course: Evidence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Study From 1986 to 2001/2002(Americans’ Changing Lives Stud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0(2), pp. 15-26.
- Hobfoll, S. E.(1989), “Conservation of Resources: A New Attempt at Conceptualizing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4(3), pp. 513-524.
- \_\_\_\_\_ (2001), “The Influence of Culture, Community, and the

- Nested-self in the Stress Process: Advancing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Applied Psychology*, 50(3), pp. 337-421.
- \_\_\_\_\_ and R. S. Lilly(1993), “Resource Conservation as a Strategy for Community Psycholog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 pp. 128-149.
- Jayakody, R. and D. Stauffer(2000),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Single Mothers: Implications for Work and Welfare Reform”, *Journal of Social Issues*, 56(4), pp. 617-634.
- Kaiser, C. F., D. N. Sattler, and D. R. Bellack, et al.(1996), “A Conservation of Resources Approach to a Natural Disaster: Sense of Coherence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1(3), pp. 459-476.
- Kessler, R. C.(2003), “Epidemiology of Women and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 74(1), pp. 5-13.
- Lempers, J. D., D. Clark-Lempers, and R. L. Simons(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pp. 25-39.
- Miller, M.(2011), “Depression in Washington’s Female TANF Population: Prevalence, DSHS Screening, and Treatment”, Olympia: Washington Stat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Document No. 11-02-3401.
- Nolen-Hoeksema, S. and G. P. Keita(2003), “Women and Depression: Introduc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7, pp. 89-90.
- Ngo, V. K., C. Sherbourne, and B. Chung, et al.(2016), “Community Engagement Compared With Technical Assistance to Disseminate Depression Care Among Low-Income, Minority Women: A Randomized Controlled Effectiveness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6, pp. 1833-1841.

- Peck, J.(2001), *Workfare States*,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Snyder, C. R.(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nyder, C. T., C. Harris, and J. R. Anderson, et al.(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s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pp. 570-585.
- Spitzer, R. L., K. Kroenke, and J. B. Williams, et al.(1999), “Validation and Utility of a Self-report Version of PRIME-MD: The PHQ Primary Care Study”, *Jama*, 282(18), pp. 1737-1744.
- Straus, M. A., S. L. Hamby, and S. Boney-McCoy, et al.(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pp. 283-316.
- Straus, M. A., S. L. Hamby, and D. Finkelhor, et al.(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2(4), pp. 249-270.

(논문 투고일: 2017.10.31, 심사 확정일: 2017.11.26, 게재 확정일: 2017.12.10)

〈Abstract〉

##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Low-income Women Workers

Yoon, Myeongsook\* · Kim, Nam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low-income women participating in a self-sufficiency program, based on the 'Resource Conservation Theory'.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data of 197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J Women's Self-help Program in J region, and whose income level was below 150%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ower the age and the lower the education level, the higher the depression level. Second, resources relat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hope, problem drinking), conditions (family factors: family violence; social factor: social exclusion), and energy (economic stress) were assess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levels of hope, family violence, and social exclusion wer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particular, the predictors that best explained the depression of the subjects were social exclusion, hope, and domestic viole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a number of policy and practical suggestions for promoting the mental health of women workers at the poverty level.

**Key words:** women self-supporting recipients,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depression, poverty, social exclusion

---

\* Lead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Lectur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honbuk National University